

[묵상과 영적성숙]

⑨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묵상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말씀뿌리 내리기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일 것이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8)

이 짧은 한 절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의 비결과 모든 승리와 형통의 길을 깨닫게 된다.

입술에 머무는 말씀

말씀 묵상의 시작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경의 짧은 한 권이나 어떤 사건 또는 비유를 읽어도 좋겠다.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라. 그날 읽은 본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된 음식만이 체내에서 에너지가 되는 법이다. 소화되어야만 생명이 된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들 말한다. 설교, 세미나 테이프도 가득 찬 세상이다. 그런데 생명수는 말라 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묵상을 시작하는 분들께 아주 적은 양의 말씀을 입으로 읽는데서 묵상을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적은 양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암송하라. 암송은 말씀을 생각에 새기는 것이다. 묵상 이전에 암송이 있어야 한다.

암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단번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반복해 보라. 안 외워질 수가 없다. 반복은 암송의 또 하나 비결이고 학습의 원리이기도 하다. 반복을 통해서 사고의 틀이 형성되고 거룩한 사고의 습관이 길러진다. 그리고 그 습관은 행동을 만들어 낸다.

가슴에 심는 진리

말씀을 암송할 때는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 말씀 암송의 단계에서 말씀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비우는데 있지 않고 채우는데 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자신을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다. 사도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고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한복음 1:16)고 증언하고 있다.

죄악을 비우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들 교육 현장에 나오는 교육의 원리였다(신명기 6:6~9).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을 감정으로 느끼게 되고 말씀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깨달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축복은 깨달음의 결과만은 아니다.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결과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부분적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 묵상은 입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